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교육에  
관한 연구: 합리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오 관 석(Oh, Kwan-Suk) \*

(E-mail : coffeonecup@naver.com

논문접수일 : 2009년 1월 15 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월 19 일

게재확정일 : 2009년 2월 21 일

---

\* 학위취득대학: 전북대학교  
현직: 전북대 강사

#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교육에 관한 연구: 합리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교육에 관한 형식과 내용을 합리성과 도덕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논의의 관점은 공동체적 시민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형성에 초점을 두고 시민성 교육의 정향 및 이념, 주체와 대상 그리고 교육적 목표이다.

연구의 결과, 시민성 교육은 공동체적 시민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형성에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시민성을 보는 형식적 관점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선택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강조하여 왔다. 다음, 내용으로 보는 관점은 시민의식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덕목과 규범의 활동양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민주적 절차와 문제해결의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고, 시민의식의 도덕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내면화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시민성 함양은 시민교육에 합리성이 기초한 형식적 관점의 시민교육이 중심이 되고,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도덕성은 시민교육의 표준방안을 확립하는 실천교육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교육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능력과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존엄성을 내면화하는데 있다. 결국, 시민성 교육은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존엄성 확립의 도덕성이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 시민성, 시민의식, 시민성 교육, 민주주의, 합리성  
도덕성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시민성(citizenship)은 동등한 권리를 찾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식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 시민의식은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사회제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능력을 말한다(추정훈 2004; 1996, 162; 신정현 외 1987, 25). 민주 시민의식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는 도덕적 사고행위를 표현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식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상호존중과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성 그리고 문제해결에 합리성을 말한다. 도덕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민주 시민의식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함양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시민성 부재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부작용과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시민성 함양에 관한 교육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생활규범의 모체가 되는 도덕성은 민주사회의 기본적 요체가 된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합리성과 도덕성은 시민교육의 형식과 내용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고 민주주의의 가치 함양에 근간이 되었다. 기존의 연구논의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함양은 교육적 관점에 따라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논의되어 왔다(한승희 1994). 시민성 교육의 형식적 관점은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권위는 개인으로부터 귀속되어 합리성으로 정당화 한다. 반면에 내용적 관점은 외부에 제시되는 표준의 도덕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개인의 규범이나 품성에 의해서 형성된다(한승희 1994, 22-24). 민주시민의 자질은 합리성과 도덕성에 의해서 형성되고 시민성 교육은 가정 및 학교,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사회에 의해서 투영되기도 한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서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시민성 교육의 정향과 이념이 어떠한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시민성 교육이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담당해야 하고 그 주체와 대상은 누구이고 교육적 목표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왔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갖고서 시민성 함양과 민주 시민교육에 대해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접근할 것이다. 또한 시민성 교육의 문제점과 그 한계를 재의미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의 문제제기

그동안 민주 시민교육은 교육적 필요에 의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시민성 교육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대안은 무엇이고 그 목표가 있다면 어느 수준에서 가능한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함양의 정향과 이념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오관석·신기현(2008)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향과 이념에 대해서 사회적 수준과 제도적 수준에서 논의한다. 김숙자·고정리(2004)는 무엇이 민주시민 교육인가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공공질서의 순<sup>1)</sup>

---

1) 김숙자·김규수·광상신·변선주(2003) 연구에 의하면, 민주시민 교육 내용의 범주는 인간의 존엄성, 공공질서, 자문화와 타문화 이해, 민주사회에서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서의 절차,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으로 가치를 두고 있다고 한다(김창환 1999; 서규선·윤기영 1995; 엄관호 2001).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신념이나 기본적인 가치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시민을 위한 민주적 시민성, 즉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은 생활에서 의사 결정력, 나아가 사회와 세계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과 능동적인 참여능력이다.

다음으로 민주시민의 주체와 대상은 누구이고, 민주시민의식의 요소는 시민성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민주 시민자질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우선하는 도덕적 현상으로써 덕목과 규범(김왕근 1997) 또는 사회적 문제의 합리적 선택과 판단(임희섭 2001)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말한다. 민주 시민자질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가치규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요소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신념과 기본적 지적 기능을 말한다(Engle & Ochoa 1988).

마지막으로 시민성 함양의 교육적 목표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사회와 국가는 민주 시민자질을 도덕성과 합리성이 내재화 과정으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추정훈 2004;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한국교육개발원(1993)에서 시민교육의 목표로서 시민자질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사회과교육학회(NCSS 1989)에서 민주 시민자질에 대해서 개념 정의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시민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질서의식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민주 시민으로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고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는 의식을 길러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민주시민은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주체이며 민주국가를 지탱하는 사회 구성원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은 국가사회의 참여와 중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 시민교육이 사회적 현실에 내재화되어 질 때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추정훈 2004;

1997). 즉 민주적 생활양식이 내재화되어 질 때,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주체적 시민이 되는 것이다.

### 3. 연구의 방법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논의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 분석의 틀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관점을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형식적 모형은 선택의 합리성을 말한다. 합리성은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선택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로운 선택을 말하고 판단은 보편성과 규정성 그리고 공정성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내용적 모형은 도덕적 덕목이나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도덕적 덕목과 규범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형성해야 할 구체적 의미를 말한다.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민주 시민의식과 시민성에 관련된 개념의 정의와 기존 연구논의를 하였다. 시민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후 민주 시민교육의 적용 단서를 모색한 이론적 배경의 논의를 하였다. 다음으로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의 정향 및 이념을 제시하였다. 민주 시민의식과 자질형성을 위한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논의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규범과 생활태도 그리고 시민의식에 관한 교육적 목표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하였다.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교육의 표준을 내용과 형식의 기준으로 각각의 지향점을 논의한 후, 시민성 자질 형성의 두 가지 측면, 합리성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내용적 관점은 시민의 삶의 과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형식적 관점은 개인이나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나아가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민주 시민교육의 과제와 선결과제에 대한 논의를 후속 연구의 과제로 제시하는 수준에서 연구의 논의를 제한하였다.

##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 1. 선행 연구의 논의

#### 1)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 시민의식

민주주의 근본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인간의 존엄성이라 말한다. 인간이 인간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추정훈 2004, 410). 민주주의의 실질적 근본이념은 공공선의 추구이며 대다수의 인간의 존엄성이 내재하는 자유와 평등이다. 민주적 시민의식은 민주주의 사회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민주적 생활태도와 행동양식을 갖춘 시민으로서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효율적인 민주주의의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여적 시민성과 민주적 가치관 그리고 민주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민주적 시민의식에 대해서 존우리(John Urry 1995)는 권리의 범위를, 바삭(Vasak 1982)은 우애와 연대에 관심을 두고 개인이 사회에 요구하는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세대는 인권에 대한 동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권리개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존우리(John Urry 1995)는 6개의 새로운 권리의 범위<sup>2)</sup>를 만들어 왔다. 시민성은 참여와 자원봉사, 그리고 모든 시민을 위해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공동체 하나의 개선을 향

---

2) 6개의 권리의 범위는 1) 문화 시민성(Cultural citizenship): 각각의 문화는 문화의 주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를 갖는다(Turner 1993), 2) 소수파 시민성(Minority citizenship): 소수파는 사회에 잔존하고 남기위해 권리를 갖고 지배 집단 만큼 권리를 갖는다(Yuval-Davis 1997), 3) 생태적 시민성: 현존하는 환경에서 살기위한 권리(van Steenberg 1994), 4) 범 세계주의적 시민성(Cosmopolitan citizenship): 모든 사람은 국가에 간섭받지 않는 다른 시민, 문화, 사회에 관계를 맺는 권리를 갖는다(Held 1995), 5) 소비자 시민성(Consum citizenship): 모든 상품, 서비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다(Urry 1995) 6). 이동적 시민성(Mobility citizenship): 다른 나라와 사회에 방문하거나 관광할 수 있는 권리(Urry 1990) 등이다.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협소하거나 지형적 특히 국가정부(아마도 민족성과 관련해서)의 충성에 관련된 낡은 시민성의 법적 개념은 아니다(Ross 2007, 297).

민주적 시민의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 공동목적, 공동체 의식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스테해리(Stacheli 2008)는 현대 서구사회에서 시민성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철학적 이론으로 논의한다. 다렌도르프(Dahrendrf 1990)는 민주적 시민의식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였다. 군스텐(Gunsteren 1994)은 근대 시민은 통치자이면서 피통치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위해서는 자치성과 판단력, 그리고 충성심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시민의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적 시민 교육은 민주정치 체제에서 필요한 시민교육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자치를 위해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과 절차적 원리를 가르치고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는 무지한 시민에 의한 맹목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시민은 지식을 갖추고 효과적인 행동과 방법으로 숙고의 기술을 갖춘 책임감 있는 시민참여를 의미한다(Quigjeg 1991). 민주시민의 교육에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공적인 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폭넓은 지식 그리고 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의 시민참여가 민주시민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캠벨(Campbell 2002)은 시민성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는 시민성 교육은 잠재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식견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며, 공공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얼마나 영향력을 갖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한다(Campbell 2002, 192). 시민성 교육의 목표는 식견 있는 의사결정 능력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는 시민의식이다. 시민의식이 무엇이나에 관해서는 교육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시민

성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고 그 중에서도 사회과 교육은 '사회인식을 통한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과정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시민적 자질 함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회가 추구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으로 다각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sup>3)</sup>

민주시민 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민주 시민성을 함양하는 활동을 말하며 시민 정신 또는 시민성함양을 목표로 추구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민주시민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민주적 국가의 정체에 관한 제반 사항,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과 가치, 그리고 민주적 생활 방식을 영위할 수 있는 태도 등을 교육의 주된 목표와 내용으로 삼는 교육이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은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정치와 사회 나아가 경제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 요구되는 능력과 태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sup>4)</sup> 하지만

---

3)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용어들로는 시민교육, 정치교육, 공민교육 등이 있는데, 이들 중 백과사전에 수록된 것은 '정치교육'이라는 용어이다. 정치교육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독일 등 유럽에서는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주로 '정치적 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나 '시민교육'(Civic Education), 일본에서는 '공민교육'으로 불리우고 있다(전득주 외 1999, 44-45).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교육을 분류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규정한 바 있는데, 1982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시민생활교육'으로(김수일·유혜경, 1982, 20-21), 1993년에는 '시민성 및 사회의식 함양형' 사회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3, 21).

4) 국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은 시민교육(civic education)과 같은 광의의 의미로 쓰이며, 좁게는 정치성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는 정치교육으로 이해된다. 독일에서는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표기되며, 영어권에서도 교육학적 용어로는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으로 표현된다. 일본의 경우는 공민교육(公民教育)이란 관용어로 쓰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실시되었던 관치교육(官治教育)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정치교육이란 용어 대신 미국에서 흔히 쓰이는 민주 시민 교육(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정치성 배양을 통해 자율적·공동체적 생활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의 양성에 교육목적을 두고 있어서 독일의 정치교육에 더 가까이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의 민주

한국 사회 등은 전통적인 정향의 가치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사회 유지 질서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성 함양은 논의되어야 하는데, 서구적인 민주시민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시민성과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민주주의의 이념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할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기존 선행연구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방향성은 책임완수, 준법정신, 협동과 소수집단의 역할, 인권 존중, 좋은 지도자의 선출 등의 민주 시민성 정립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 되었다. 특히 한국문화와 민주시민 교육(중앙교육 연구소 1967)에서는 인권 존중, 공익을 위한 봉사과 활동, 자유와 책임, 준법정신, 자치생활에서의 참여로 민주시민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시민 교육은 의사 결정이나 사고력 향상 등 반성적 사고력, 시민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직접 밝힌다기보다는 그 자질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머문다. 따라서 책임 있는 민주 시민성 정립은 구성요소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인식, 기본생활 습관 및 질서의식의 내면화,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서 숙달,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1951년에 미국사회과 교육협회는 24가지에 달하는 시민성의 내용<sup>5)</sup>을 규정하였다. 민주적 정치 체제의 유지·발전<sup>6)</sup>에 있음을 강조하는 버츠(Butts 1990)는 12가지 민주시민의 덕목<sup>6)</sup>을 제시하고

---

시민교육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아울러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으로써, 참여자 스스로 습득케 하는 의사소통적 교육이다”로 정의되고 있다.

- 5) 미국사회과학 교육협회 주요 내용은 평등, 자유, 인간의 기본적 권리, 법률, 정치적 능력, 경제, 가족, 지역, 사회, 국제 문제 등 이었다.
- 6)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기본 이념 아래 통일성과 관련된 가치는 정의, 평등, 권위, 참여, 진리, 애국심이며, 다양성과 관련된 가치는 자유, 다양성, 사적 생활 보장, 적법 절차, 사유재산, 인권으로 이들 가치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있다. 토니와 그의 동료들은 10개국의 시민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인지적 영역에는 헌법 구조, 정부 기구와 조직, 정치 과정, 국제 관계, 사회과학과 문제해결의 방법 등, 정의적 영역에는 권리·의무의 이해, 민주적 생활 태도에 대한 신뢰, 도덕과 종교적 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정치적 반대에 대한 존중,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등, 행동적 영역에는 법의 준수, 납세, 의사결정에서 참여, 타인의 존중, 문제해결에서 비판적 사고 등을 내용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지적 기능과 참여 기능을 함양하여야 한다. 민주 시민교육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설명, 분석, 평가, 옹호의 능력을 의미하며 참여 기능은 상호작용, 비판과 감시 작용, 투표와 같은 영향력 행사 등을 의미한다.

## 2) 민주시민의 자질과 그 요소

민주 시민적 자질은 시민성 개념의 근본으로 보고 있다. 조영달(1995, 25)은 민주 시민적 자질에 대해서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동시에 요구하며, 사회생활에 합리적이고 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의사결정자로 보았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자질을 강조하는 김왕근(1997)은 시민성을 개념적 전체와 범주적 전체로 나누어 정의를 하고 있다. 즉 민주 시민적 자질은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전체로 하며, 국가 수준의 정치 공동체를 전체로 요구되는 자질로 보았다. 또한 그는 시민성 개념을 ‘다중 시민성’ 개념으로 보는데, 세계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국가시민으로서의 지위가 다른 수준의 시민적 지위를 갖는다는 현상적이면서 동시에 규범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김왕근 1999, 53-56).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성 자질에 대해서 접근하면, 일상생활뿐

만 아니라 국가 사회전반의 체계에서 보편적 가치와 의식을 갖춘 능력을 말한다. 차경수(2004)에 의하면, 시민의 자질이란 ‘개인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의 여러 면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숙자(2003)는 ‘지식과 가치, 기능적 측면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 시민적 자질은 사회생활 속에서 기본적 지식을 형성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시민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민주 시민에 관한 포괄적 논의에서 한면희(2001)는 ‘오늘날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율성, 창조성, 진취성, 생산성, 도덕성과 건전한 사회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보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요소는 민주 시민적 자질의 개념적 의미에 더하여, 사회과에서 길러야할 시민성, 즉 민주 시민이 지녀야 하는 자질이나 기능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 뉴만(Newmann 1977)은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 대화 능력, 자료처리 능력, 의사결정 능력, 논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 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협동력 등을 들고 있다. 이후 1980년대를 시점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민주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민주 시민의 자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앵글과 오초아(Engle & Ochoa 1988)는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할 기능으로 ‘기본적인 지식, 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신념, 기본적인 지적 기능(문제 평가 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능력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의 요소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생활에서 적응해야 할 다양한 능력을 함양하여 적극적 태도를 갖고 능동적 시민성을 형

성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 사회적 실천행동으로 체계화하는 시민성을 강조한다.

## 2. 이론적 배경과 접근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함양에 관한 교육은 관점에 따라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한승희 1994). 형식의 관점은 개인의 판단과 선택의 권리는 개인으로부터 귀속되어 합리성으로 정당화된다. 반면에 내용의 관점은 외부에 제시되는 표준의 도덕성에 전제하기 때문에, 개인의 규범이나 품성에 의해서 형성된다. 시민성 교육이 도덕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나아가 국가 사회에 의해서 함양되기도 하고 투영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적 자질은 내재화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추정훈(2004)은 민주 시민적 자질의 내재화는 지식을 습득하고 다음으로 가치·태도를 형성한 후 지식에서 가치로 내재화 과정을 시민적 자질을 함양한다고 보았다. 시민성 교육을 위한 민주주의 가치의 내재화는 민주주의 지식의 교육과 구조화 달성과 민주주의 원리의 활용 및 내재화로 구분하여 시민성 교육의 최종 단계에 이르러 이상적인 인간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 보고한 시민자질은 ‘인간 존엄성의 신념 내면화’, ‘기본생활 습관 및 질서의식의 내면화’,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의 숙달’,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함양’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시민 자질형성을 위한 이론적 논의는 미국 사회과교육협의회(NCSS)에서 민주시민의 자질 덕목으로 정의, 평등, 책임, 준법, 자유, 정직, 타인에 대한 배려, 충성 등을 제시하였다(NCSS 1989: 376-378). 딘네슨(Dymneson 1992)은 “훌륭한 시민적 자질로 현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학교나 지역 사회에 참

여, 책임의 수용, 타인의 배려, 도덕적 행동,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결정능력, 정치에 대한 지식, 애국심” 등을 들고 있다(Dynneson 1992, 5-56). 또한 세버지와 암스트롱(Savage & Amstrong 1996)은 시민적 자질로 “민주적 의사 결정능력, 비판력,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Savage & Armstrong 1996, 9-10).

민주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민주주의 이념을 내재화 할 수 있는 시민성이 함양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와 평등이다<sup>7)</sup>. 자유가 개인 지향적 요소를 갖는데 비해 평등은 본질적으로 사회 지향적 요소를 갖고 있다. 자유와 평등은 사회과 내용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이며 시민성 교육의 가치이며 척도이다.

시민성 교육에 관해서 미국에서도 1915년과 1916년의 보고서 이래로 사회과의 주요 목표로 받아들여져 왔으며(Mehlinger & Davis 1981, 40),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 사회과가 도입된 이후에도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한면희 2001, 17). 미국의 경우, 1900년경 사회과 성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 시민성에 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이를테면, 뉴만(Newmann 1975)을 비롯하여, 앵글과 오초아(Engle & Ochoa 1988), 파커(Paker 1989), 디네슨과 그로스(Dynneson & Gross 1991) 등의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시민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양식을 학습하고 표출하는 과정이다. 시민교육은 인간의 정치 및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적 일체감을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학습과정이다. 권오정(1987, 287)은

---

7) 자유란 억압이나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했다. 구속으로부터 개인의 해방을 말하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개인주의를 배타하게 된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행동, 표현할 수 있는 권리, 프라이버시(privacy) 영역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평등은 인간이 능력이나 사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통합교육을 일종의 정치사회화라고 하며, 공식적 교육과정상으로 볼 때 정치적 ‘공민적 자질’, 즉 시민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회과의 시민성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힌다.

시민성을 단순히 국가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에 국한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과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의 제도적 보장으로 정의한다. 최장집 외(2007)는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로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으며 권위주의 세력에 의한 민주화의 전복 가능성은 사라지고 체제의 공고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문제이다. 민주주의 방향과 시민성은 경제적 영역이든 정치적 영역이든 실질적 제도와 절차에서도 민주주의를 말한다. 윤상철 외(2006)는 한국은 민주발전 지수가 제도와 실행의 부분과 태도와 의식의 부분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고 연구 논의한다. 즉 한국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의식과 태도의 차원과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시민성을 일상생활의 비민주적인 의식과 태도, 행위 그리고 관행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를 논의하고 있다. 일상의 민주주의란 비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가치인 정치적인 평등이 일상의 차원을 규율하는 시민의 덕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상인(2008)은 일상의 민주적 시민성으로 세 가지를 주장한다. 먼저 사회 경제적 위치와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려는 성향과 태도, 둘째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향과 태도, 셋째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에서 약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성향과 태도를 말한다.

공동체와 시민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스테해리(Staheli 2008)에 의해서 논의된다. 스테해리(Staheli 2008)는 공동체는 서로 다른 도덕적 지형의 차이에 있는 갈등의 대상이라고 한다. 시민성 교육에 대한 이론적 모형은 캠벨(Campbell 2002)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그는 시민성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먼저 식견있는 시민에 대한 지식과 이해, 질문과 의사소통의 기술 개발 그리고 참여와 책임있는 행동의 기술개발로 모형화한다(Campbell 2002, 192). 초기의 시민성 교육은 역사 또는 정부의 제도나 정치과정에 대해서 일반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에서 협의의 계속되는 진보차원에 역사를 묘사하거나 정치제도가 보조를 맞추며 작동하도록 하는 인식의 정도였다. 나아가 민주적 개념과 가치는 사회내에서 긴장이 교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르쳐졌고(DeJaeghere 2005), 이러한 개념은 사회적 갈등이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 갈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Westheimer & Kahne 2004). 또한 그들은 참여를 고무하거나 아니면 시민행동이 쓰레기를 줍거나 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생각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와 함께 모든 시민의 참여와 권력에 대한 대등한 기여가 고무되면서 시민성 교육도 진보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개혁의 능동적 참여뿐만 아니라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정의 사이에 관계를 시험하기도 한다.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으면서 집단별 차이가 나는지를 배우게 된다.

또한 조쉬(Joshee 2004)는 시민성 교육의 목표가 시민에게 사회적 긴장에 관심을 두었고, 빅모어(Bickmore 2006)는 사회적 긴장의 증가가 이유 있다면, 민주적 원칙을 지지하고 유사성을 고무하는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적 시민의 관심은 사회적 문제와 긴장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어 왔다. 반면에 크락과 케이스(Clark & Case 1999, 18)는 생산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합하려면, 시민성 교육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이해', '능력' 그리고 '가치'를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새로운 시민의 목적인 시민성 교육의 본질은 태도 가치 행동을 만들어 내거나 고무시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시민성 교육은 민주주의의 이행을 발전시키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행이 형식의 관점 또는 내용적 관점에서든 실질적으로 인간의 시민성 함양을 전제로 이루어

진다면 시민이 따라야 할 표준과 활동 양식이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 Ⅲ. 시민성 함양에 대한 교육적 관점

#### 1. 형식적 관점과 의사결정의 합리성

##### 1) 선택의 합리성과 시민의식

시민의식이란 사회적 존재로써 타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생활 속의 질서의식과 규범의식을 내면화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적 시민의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자유와 평등 등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공동체 질서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시민을 위한 시민성 교육이 단지 개인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을 전제 하듯이 개인은 시민으로써 공동체 시민의식<sup>8)</sup>을 가져야 한다.

시민성 교육이 추구해야 할 시민의식의 정향과 이념은 사회구성원으로써 자질을 함양해야 하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시민의 수행 능력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능력이다. 사회구성원으로써 합리적 판단과 선택은 인지적 활동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한승희 1994, 22). 판단과 선택은 주관적 숙고와 추론을 토대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적 능력이다. 즉 판단의 옳고 그름은 선택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지적 능력의 형식적 관점이다. 이러한 형식 속에서 구체

8) 공동체의 의미는 실체의 관점에서부터 법적, 사회체계와 정신적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추정훈 2000, 371). 추정훈(2000)은 공동체의 구분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동일행위, 동일 직종의 구성원과 같이 동일성을 갖춘 조직체나 범주의 구성원을 포괄하는 의미, 둘째 법적 확정된 경계내의 사람들, 셋째 사회체계들의 상호의존성 내지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적 시각, 넷째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현상으로써 다른 사람과 일체가 되어 함께 관계를 맺고자 하는 현상 등이다.

적 행동이 주체적 지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판단의 옳음과 선택의 정당화를 합리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성은 선택의 합리성이라고 한다(Schutz 1975, 79). 샤젠(Chazen 1985, 4)은 합리적 선택을 판단의 주체가 따라야 하는 절차나 원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택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입장은 행동의 옳고 그름에 판단 즉, 판단을 구별하는데 주된 관심을 갖는다.

또한 시민성 교육은 규범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규범적 관점은 정치 철학적, 가치 지향적 정향과 이념의 의미를 갖는다. 다음 과학적 관점은 실증적, 가치중립적 정향과 이념을 의미한다.

시민성 교육의 성격이 규범적 가치지향일 경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치공동체의 이상은 무엇이고 시민은 어떠한 자질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게 된다. 립슨(Lipson 1970)은 시민성 교육을 규범적 가치 정향적인 정치공동체의 요구를 수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피터슨(Peterson)은 정치적 공동체의 이념을 민주주의로 파악하면서 이를 위한 원리와 요건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이홍우 역 1980). 과학적 관점은 가치중립적으로 정치현상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즉 과학적 관점은 특정한 가치와 무관한 기술적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즉 시민은 정치공동체의 현상을 이해하고 현명한 식견과 지성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김왕근 1997, 32-33).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의 참여의 주체와 그 대상은 시민의 관계에서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다(김왕근 1997, 28). 프록터(Proctor 1988, 17)는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는 전체(whole)에 해당되고, 구성원은 부분(part)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에서 부분에게 요구되는 행동방식이 시민성이라고 한다. 맥인타르(MacIntyre 1984, 187)는 전체로써 공

동체는 활동양식(practice)이라는 개념인데 활동양식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공통적인 인간 활동에 일관되고 복합적 양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활동양식에 참여하는 것은 규범성과 탁월성의 기준을 추구하는 것이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활동양식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그러나 공동체는 시민성의 부분적 구조가 앞서있는 협상되어지는 곳이라고 한다(Stacheli 2008).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다양한 가치와 의식이 혼재된 사회구조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지만 민주적 시민으로써 공동체 의식<sup>9)</sup>은 공동의 가치관과 신념체계 그리고 상호의존성을 포괄해야 한다(추정훈 1993, 14-15). 구체적으로 기록스(Giroux 1999)는 공동체가 시민성교육이 미래전망과 교육의 전망을 함의하고 시민성교육을 통해서 ‘살맛나는 사회 건설’, ‘인간가치 실현’을 제안하고 있다<sup>10)</sup>. 또한 현대사회는 인간성의 상실과 가치 갈등의 혼돈 속에 목적성을 상실하고 부유하는 현대인에게 변증법적 사고를 주체적 자기 인식을 촉진하고 주변의 인적·사회·자연적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기·이타적 긍정심을 전제로 하는 시민상을 시사하고 있다(이영호 1995).

그래서 바버(Barber 1984)는 현대의 민주주의 위기를 시민들의 지나친 탐욕과 이기심, 정치적 무관심을 예를 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연대 공익정신과 참여정신이 필요한 참여적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좀 더 강한 실천적 의미에서 하즈도(Hajdo)는 시민성을 약한 시민성과 강한 시민성으로 구분하면서 강한 시민성을 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Perry & Katula

---

9) 민주적 공동체는 시민성이 도덕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보편성의 형태에 뿌리를 두고 있다(Stacheli 2008, 8). 그런가 하면 일부의 학자는 ‘공유된 경험’(Barber 1998),이라고 하며, 구딩(Goulding 1993)은 ‘공동의 가치’라고 한다. 결국 공동체란 ‘공동’과 ‘단일체’인 것이다.

10) 기록스(Giroux 1989)는 시민성 교육론의 자체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 사회, 인간중심적 삶의 문호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실천의 지향점이라고 한다. 기록스(Giroux 1989)는 그의 저서 “Schooling for Democracy: Critical Pedagogy in the Modern Age”에서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교육의 정치 의식화를 강조하고 있다.

2001). 시민교육은 일상생활에 삶의 방식에서부터 정치적 활동양식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경험의 형식으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왕근(1997, 34)은 정치공동체에 관련된 지식의 제 측면을 시민교육의 내용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한다. 이는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의 목적은 특정한 가치와 무관한 기술적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모습도 정의성보다는 인지성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 2) 의사결정의 합리성

시민성의 원천은 합리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적 행동양식에 매개되는 합리성은 판단형식을 지향하고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능력을 갖는다. 합리성에 의존하지 않는 시민성은 형식이 불과하며 기계적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합리적 행위에 대한 최선의 판단형식은 활동양식의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며 수단이 되는 것이다.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시민성 교육은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지식과 가치 및 능력을 함양하는 학습내용이다. 또한 시민성 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양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시민성 교육은 공동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활동양식의 내재된 가치에 전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말할 수 있는데 미국사회과교육학회(NCSS 1989)<sup>11)</sup>는 공동체에 관한 내용에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교육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문제해결 과정에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

---

11) 미국사회과교육학회(NCSS 1989)는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① 공동체의 사건과 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② 나 자신과 이웃, 공동체에 관하여 걱정하기 ③ 개인적 재능과 기능을 공유함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기 ④ 자발적인 행동 ⑤ 문제에 관하여 스스로 교육하고 토론에 참여하기 ⑥ 투표하기 ⑦ 봉사와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등이다.  
<http://www.skypoint.com/members/dennyj/Values1st/citizenship.html>

는 인지적 능력, 즉 합리적 판단능력을 말한다. 콜버그(Kohlberg 1981)는 합리성은 도덕성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각 단계의 판단 형식의 합리성은 내용의 매개화 과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합리성은 그 자체가 내용과 분리된 독립적인 대상으로 인식이 가능하나, 시민교육과 같은 실제 활동으로 나타날 때 내용과 결합되어 내용을 수단 또는 방법적 원리로서 존재한다고 보았다(김왕근 1997, 35).

이러한 시민성 교육의 접근에 대해서 기록스(Giroux 1983)는 시민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조건화 하는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해석적 합리성’, 그리고 ‘해방적 합리성’으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술적 합리성은 실증주의적, 경험 과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도구적 합리성이다. 기술적 합리성은 목적보다 수단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적 합리성은 실재적 의미론적 합리성이다. 다시 말해 일상적 삶의 조직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형태·범주·전제들이 주변세계와 어떻게 조화하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해방적 합리성은 개인과 집단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결정 억압구조에 대한 분석의 틀로써 정치적 투쟁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사회 의식이다. 기록스(Giroux 1983)는 합리성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정당화하여 시민의 의식과 행동을 조건화 하느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록스(Giroux 1983)는 교육을 통해 인간가치를 구현하는 의미에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기능주의 갈등주의적 패러다임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교육을 사회 문제 해결에 관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는다(이영호 1995).

시민성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고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것이다. 즉 시민성 교육은 시민적 자질 함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회가 추구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여기에 공동체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민참여는 무지한 시민에 의한 맹목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시민으로써 지식을 갖추고 효과적인 행

동과 방법으로 숙고의 기술을 갖춘 시민이 책임감 있는 시민참여를 의미한다(Quigjeg, 1991).

이와 같이 시민성 교육은 민주 시민의식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시민성 교육은 민주주의 신념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볼 수 있는 자성과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다원적 가치에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함양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재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평등의식 그리고 관용성을 고양시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소통의 민주성을 달성해야 한다.

## 2. 내용적 관점과 민주시민의 도덕성

### 1) 민주시민의 자질형성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에 필수적인 것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이며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형성되고 학습되어야 한다. 민주적 시민의식의 정향과 이념은 인간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자체의 가치를 인정 받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추경훈 2004, 410). 즉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적 능력 태도, 자질과 같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길러주는 일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교육에 대해서 논의한 추정훈(2004)은 민주 시민성 교육의 목적이 민주주의 가치관을 내재화 하는 것으로 보았다. 추정훈(2004)이 말하는 민주주의 내재화는 민주주의 개념의 이해와 구조화, 기능적 훈련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의 내재화를 통해서 민주시민성 함양을 주장한다. 민주시민 교육의 시민성논의는 교육과정과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에 적합한 개인을 양성하는 목적을 갖는다. 대체로 교육 심리학과 교

육 실무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추병완(2008)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도덕성을 실천과제로 교육을 논의한다.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성(다원성)에서 야기되는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태도이다.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대화와 타협의 근본정신이 상대의 입장을 인정해주는 관용의 정신이다.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타협과 양보를 통해 보다 나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설득과 이해의 기법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적 시민성 교육의 주체와 그 대상은 민주 시민이다. 시민은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치참여가 가능하다. 민주 시민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소수의 엘리트나 특정 권력의 독점이 자의적으로 행사된다면 민주주의는 공허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 정도는 시민사회의 힘과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정도에 비례한다(최장집 1996, 11). 따라서 민주시민의식은 시민책임과 연대의식 그리고 주체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손승남 2000, 83-84). 민주시민교육은 주권자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참여가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이며 의무라는 점이다. 시민은 정치적 문제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공익실현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된다(최대권 1994, 57). 민주 시민은 여론형성의 주체로서 또는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손승남 2000, 84).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의미는 권리의 자각과 적극적인 참여로 정치권력을 창출하는 민주사회의 주체로써 이해된다. 따라서 민주 시민은 정치사회화 또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되고 국가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이루어진다. 주체적 자아와 합리주의, 대화와 타협 공동체의식, 준법의 생활화에서 나타난다. 주체적 자아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합리주의와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유와 책임의 문제가 파생된다. 이러한 주제적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개인이 취하는 정치행동 또는 행위 즉 정치참여는 정치적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태도는 정치적 행동의 일련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습득된 학습과정에서 형성된다. 하이만(Hyman 1995)은 사회화를 사회의 여러 매개체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의 위치에 알맞은 사회적 유형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사회화란 개인이 특정 사회의 사회체계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그 사회의 체계와 현상을 인지하고 특정체계에 대한 선호와 신뢰를 경험하며 사회활동에 체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화 과정은 인간이 사회적인 면에서 성숙하는 것처럼 민주시민으로 성숙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화 과정은 민주정치 문화에 기여하는 기본요소중 하나이다. 민주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에 올바르게 판단하고 비판적인 의식을 갖추고 정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사회화 과정의 교육은 사회적 권위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규칙을 지키고 질서를 바로 잡는 사회적 규범이 된다. 민주 자질을 위한 민주적 태도는 타인을 배려하는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에 대해서 토의하고 합의하는 자세이다. 특히 민주적 태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특정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여 얻어진 합의에 대해서 지키고 따르는 준법정신 내지는 질서의식이다.

전득주(1995)는 한국사회 시민의 민주적 태도의 구성요소를 정치사회화에 필히 고려해야할 핵심적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2)</sup> 또

---

12) 전득주(1995)는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여섯 가지 민주적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1) 준법정신 및 질서의식, 2) 관용의 태도, 3) 동료시민을 신뢰하는 태도,

한 민주적 태도에 맞춰 실천덕목으로서 자주적 인간, 민주적 인간 그리고 도덕적 인간의 교육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교육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홍용희(2004)의 연구에서 논의된다. 홍용희(2004)는 민주시민 교육은 사회변화 개혁의 비전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민주주의의 시민교육의 목표는 생활에 관계되는 가치체계, 신념 및 태도 등은 자연스럽게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다. 시민성의 목표는 덕목, 전통 등을 중시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보다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Lowery et al. 1992). 시민성의 교육의 목표는 강한 소속감을 가짐으로 정체성에 형성되는 상황적 자아를 중요시 한다(김영인 2003; 심정보 1994; Conover & Searing 1994).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성의 교육적 목적은 사회적 연대의식과 책임성을 갖추고 개인적 의무를 다하며, 참여적 태도를 말한다. 나아가 시민들이 공동체적 전통을 중시하고 덕목을 갖추는 것이다(김영인 2003, 187-188).

시민교육의 목표는 현대사회의 도덕성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윤리의 기본정신을 확립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간의 도덕의식의 약화는 인간성 상실, 개인과 집단 간의 이기주의 문제, 지역문제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화해와 타협의 조정을 강제와 억압으로 통제하려는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기 쉽다. 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김종서·황종건·김신일·한승희 2002).

민주주의의 시민적 자질에 대한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의 신념의 내면화와 기본 생활 습관 및 질서 의식의 내면화로 나뉘어진다(한승희 1994, 26-27). 먼저 인간의 존엄성의 내면화는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평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고

---

4)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식, 5) 정치지도자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의식, 6) 정직성이 민주적 태도의 구성요소 등이다.

존중하며 사회적 공동체 의식과 공공선을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 생활습관 및 질서 의식의 내면화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범절의 이해와 실천 속에 공중도덕의 생활화하는 것이다.

## 2) 민주시민의 도덕성

도덕성은 인격형성에서 나타난다. 인격의 개념은 덕의 획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이경무 2003, 111). 인격은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작동적 가치이다(Likona 1993) 인격은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 행위 또는 도덕성에 연관된 세 부분 즉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sup>13)</sup>을 포괄하는 개념이다(Likona 1993). 리코나(Likona 1993)는 인격의 인지적 측면이란 합리적인 도덕적 사고 능력이고, 정의적 측면이란 판단과 행동을 연결해 주는 도덕적 정서이며, 행동적 측면이란 도덕적 판단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도덕적 실천력이다. 그는 민주사회의 참된 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성숙함을 말한다(Likona 1993, 51).

도덕성이 실현되는 장은 시민사회의 광범한 영역에 걸쳐있다. 정치의 기본적 덕목을 도덕성이라 지적할 때,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시민의 광범위한 믿음과 지지가 필수이다. 마찬가지로 도덕성은 공동체의 관행과 믿음이 끊임없이 재검토되는 사회통합의 핵심이다. 하이만(Hyman 1959, 17)도 인간의 정치적 행위는 인생의 초기에 민감하게 습득하고 일단 습득된 태도나 지식에 대해서 잘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정치사회화와

---

13) 사실 인격의 의미를 세 가지 즉 도덕적 행위를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측면에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간은 인지·정의·행동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총체적 인격체로서, 일상생활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이경무 2003, 123).

도덕성의 발달은 피아제(Piaget)와 콜버그(Kohlberg)는 도덕적 사고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조사 하였다.

민주 시민교육은 의사 결정이나 사고력 향상 등 반성적 사고력, 시민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직접 밝힌다기보다는 그 자질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머문다. 책임 있는 민주 시민성 정립은 구성요소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인식, 기본 생활 습관 및 질서 의식의 내면화, 민주적 절차 및 과정에서의 숙달,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함양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교육의 시민성 함양에 구체적 적용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민주시민 덕목과 민주주의 이념을 재정립해 볼 필요성이 절실하다.

민주 시민자질을 위한 시민성 교육에서 우선해야 할 가치는 민주주의 확립과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확립이다. 도덕성은 인격이라고도 한다. 윤리학에서 덕은 인격 교육의 부활이 어느 정도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윤리학의 이론은 인격 교육의 개념을 정교히 하였다. 한국사회는 짧은 민주주의 경험에서 오는 민주시민 의식의 미성숙, 급격한 경제 성장에서 오는 괴리감을 극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나아가 전통 윤리와 서구 시민 윤리 간의 혼재로 인한 시민 윤리의 미정착 문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시민성 강화는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형성하고 사회 경쟁력을 갖추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 IV. 결 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성 함양 및 교육에 관한 논의를 합리성과 도덕성 차원에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사실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관한 연구는 제도나 절차(박명립 2008; 주성수 2007) 또는 법과 이념(장용근 2007; 박수헌 1999)을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고, 시민성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의식(노병만 2003; 배한동 2001; 손승남 2000)정도의 수준에서 한정된 연구가 논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른 이유는 한국사회가 시민성 교육에 등한시 하였거나 아니면 민주적 가치관이 시민 각 개인에게 내재화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추정훈 2004, 418). 아니면 시민성 교육이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의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범위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도덕적 가치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특히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피교육자의 인간적 내면의 도덕성에 대한 인격형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함양은 도덕성 못지않게 합리성도 중요하다. 시민성 함양의 형식은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덕목이다. 시민성 함양에서 형식적 요인을 등한시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시민성 논의가 여전히 그 내용의 수준에서 머물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이다. 시민성 교육의 합리성은 정치사회에 적극적 참여와 의사결정 능력에서 나온다. 민주시민 교육의 구체적 실천의 발로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 함양은 내용 못지않게 형식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 시민성 교육의 정향과 이념은 사회생활에서 시민교육이 비교적 생활 속의 규범과 질서의식 또는 규범적 시민의식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참여의식에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논의되어 왔다. 시민성 교육은 도덕성을 강조하는 인격형성과 올바른 품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히터와 올리버(Heater & Oliver 1994)도 시민적 덕성과 좋은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도덕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덕목과 규범을 지키는 의식과 행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시민성 교육의 주체와 대상은 민주주의 가치실현의 시민이다.

즉 시민성 교육의 주체는 아동이나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교육적 대상이다. 시민성 교육은 성인이나 고학년 일수록 어렵다고 한다. 앞으로 잠재적 시민이 될 청소년이나 아동의 시민성 함양은 성인이 되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오관석·신기현 2008). 따라서 시민성 교육은 어릴수록 주효하다는 논리이다.

시민성 교육의 목표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서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과 인간의 존엄성의 신념의 내면화하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의견의 상호존중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타협과 조정을 중시하는 시민의식의 성숙함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덕목이나 가치를 중시하고 질서의식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도덕성 함양의 내용에서 합리성의 형식으로 논의해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은 도덕성과 합리성의 그 어느 측면만 강조 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즉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시민성 교육은 도덕성과 합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기도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건강한 민주시민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장래의 민주 시민의식을 위한 시민성 함양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첩경이다. 따라서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연구 논의와 기반 조성은 장기적 차원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투자가 선행될 때, 국가의 경쟁력과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권오정, 1987, “사회과학과 사회과학”, 『사회과학교육』, 제20호, 47-60.
- 김수일·유혜경, 1982, “사회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숙자·고정리, 2004, “유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1집 3호, 191-215.
- 김숙자·김규수·광상신·변선주, 2003, “도시 지역 유치원의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실천에서 나타난 교사의 교수 행동 - 통일사회 지향적인 민주시민교육 활동 프로그램 모형 준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I)”, 『열린유아교육연구』, 제8집 2호, 73-94.
- 김영인, 2003, “시민성 함양방안으로서 청소년 봉사활동지도에 관한 연구: 봉사학습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교육』, 제42권 2호, 185-210.
- 김왕근, 1997, “민주적 공동체 생활을 실현하는 교육과정: 시민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15권 1호, 26-56.
- 김왕근, 1999, “세계화와 다중 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28집, 45-68.
- 김영인, 2003, “시민성 함양방안으로서 청소년 봉사활동지도에 관한 연구: 봉사학습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교육』, 제42권 2호, 185-210.
- 노병만, 2003, “한국의 충효관념과 민주시민의식 관계”, 『한국정치외교논총』, 제25집 1호, 57-86.
- 박명림, 2008, “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재야의 기원, 제도관계, 이념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4집 2호, 231-263.
- 박수현, 1999,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비판적 재성

- 찰”, 『한국과국제정치』, 제15집 2호, 1-31.
- 배한동, 2001, “한국 대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 제9집 2호, 227-260.
- 서규선·윤기영, 1995, “유치원의 통일교육 방안 모색”, 『국민윤리 연구』, 제34집, 399-423.
- 손승남, 2000, “민주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의 모색”,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5권 1호, 81-98.
- 주성수, 2007, “직접, 대의, 심의, 민주주의 제도의 통합: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집 1호, 177-205.
- 심성보, 199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과 교육철학적 긴장”, 『교육학연구』, 제32권 5호, 289-304.
- 신정현·신용철·권오정, 1987, 『민주시민 교육론』, 서울: 탐구당.
- 엄판호, 2001,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안”, 『교육이론과 실천』, 제11집 2호.
- 오관석·신기현, 2008, “민주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이념 및 정향에 관한 연구: 시민의식 수준과 영역체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집, 68-106.
- 윤상철·김정훈·김종엽·박은홍·윤민재·장상철·황정미, 2006, 『민주발전지수: 2004-2005 평가와 전망』, 서울: 민주화 운동기념 사업회.
- 이경무, 2003, “인격 교육의 통합적 성격”, 『범한철학』, 제28집, 봄.
- 이상인, 2008,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일상의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민성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0권 1호, 95-126.
- 이영호, 1995, “Giroux의 시민성 교육”, 『한국교육연구』, 제2권 2호, 110-127.
- 이홍우 역, 1980, R, S, 피터즈 저,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 임희섭, 2001, “한국사회 시민성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 제4집, 5-30.
- 장용근, 2007, “민주주의의 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제13집 제2호, 273-296.
- 전숙자, 2003, 『사회과 교육의 통합적 구성과 교수-학습설계』, 서울: 교육과학사.
- 조영달, 1995,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동일시대의 민주시민교육-민주시민교육의 강령과 교육모형 탐색”, 『사회와 교육』, 제20집, 23-50.
- 전득주 외, 1999, 『정치문화와 민주시민교육』, 서울: 유평출판사.
- \_\_\_\_\_, 1995, “민주화, 국제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29집 1호, 29-52.
- 차경수, 2004, 『현대사회교육』, 서울: 학문사.
- 최대권, 1994, “국민, 참여 그리고 정책결정과정” 전득주 외, 『통일을 향한 시민과 국가: 현대국가의 기능 정책과 비판』, 서울: 학문사.
- 최장집, 1996, “한국의 민주화, 시민사회, 시민운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편, 『한국시민사회의 이해』, 서울: 한울 9-46.
- 추병완, 2008,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육 방안”, 『초등도덕교육』, 제27권, 25-60.
- 추정훈, 2004, “민주시민성교육 과정 속에서의 민주주의 교육”, 『시민교육연구』, 제36권 2호, 399-421.
- \_\_\_\_\_, 2000, “공동체 참여와 시민성 교육”, 『시민교육연구』, 제31집, 한국사회과 교육학회.
- \_\_\_\_\_, 1997, “문제해결학습을 통한 시민성 함양”, 『사회와 교육』, 제25집, 347-367.
- \_\_\_\_\_, 1996, “정치학과 시민성 교육”, 『사회과 교육』, 제23집, 161-177.
- \_\_\_\_\_, 1993, “공동체형성 논리에서 본 사회통합교육”, 박사학위논문

문,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교육개발원, 1993, 『유치원용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면희, 2001, 『사회과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한승희, 1994, 『바른시민생활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94-11].
- 홍용희, 2004, “세계화 시대의 민주 시민교육 정립 과제”, 『한국윤리학회』, 제55호.
- Barber, B., 1998, *A place for us: How to make society civil and democracy strong*. New York: Hill and Wang.
-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Bickmore, K., 2006, "Democratic social cohesion (assimilation)? Representations of social conflict in Canadian public school curriculum".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29(2), 259-386.
- Burt, S., 1990, "The Good Citizen's Psyche: On the Psychology of Civic Virtue", *Polity*. 23(1): 23-38.
- Campbell, Peter, 2002, A citizenship dimension to physics education, *Special Feature: Physics for Citizenship*. William Morris Academy. London UK.
- Chazan, B., 1985, *Contemporary Approaches to Moral Edu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Clark, P., & Case, R., 1999, Four purpose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P. Clark & R. Case (Eds.). *The Canadian Anthology of Social Studies* (17-27). Vancouver, BC: Simon Fraser University Press.
- Conover, P. J. and Searing, D. S., 1994,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Study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I. Budge and D.

- McKay (eds.) *Developing Democracy*. London: SAGE Publications. pp.24-55.
- Dahrendorf, Ralf, 1990, *The Modern Social Conflict, An Essay on the Political of Liber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eJaeghere, J. G., 2005, Global dimensions of citizenship in the Australian secondary curriculum: Between critical contestations and minimal constructions. In E. D. Stevick (Ed.), *Educating democratic citizens: Sociocultural research on civic education round the glob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Inc
- Dymneson, T. L. & Gross, R. E., 1991, *Social science perspectives on citizenship edu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Engle, S. H. & Ochoa, A. S., 1988,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N.Y.: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Giroux, H. A., 1983, *Theory & Resistance in Education: A Pedagogy for the Opposition*. Massachusetts: Bergin and Garvey Publishers. Inc.
- Goulding, M., 1993, *Communities and the liberal community: some comments and questions*. In J. Chapman, & I. Shapiro (Eds.), *Democratic community. NOMOS XXXV* (115-125).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Gunsteren, H. van, 1994, Four Conceptions of Citizenship. in Bart Van Steenbergen (ed.).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London: SAGE Publications. 36-48.
- Heater, D. & Oliver, D., 1994, *The Foundations of Citizenship*.

-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 Held, D., 1995, *Democracy and the Glob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 Hyman Herbert H., 1995, *Political Socialization*. Glencoe, LIII; Free Press.
- Joshee, R., 2004.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education in Canada. In J. A. Banks (Ed.).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pp. 127-156): Jossey-Bass.
- Kohlberg, L. 2000, 『도덕발달의 철학』, 김민남 · 김종소 · 짐미숙 역, 서울: 교육과학사.
- Likona, T., 1993, "The Return of Charactor Education". *Education Leadership*. November.
- Lipson, L., 1970, *The Great Issues of Politics: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Englewood Clifts. N.J.: Prentice-Hall. Inc.
- Lowery D. DeHoog. Ruth H. and Lyons, Wikkiam E., 1992, "Citizenship in the empowered locality". *Urban Affairs Quarterly*. 28(1) 69-103.
- MacIntyre, A. 1984, *After Virture: A Study in Moral Theory*(2nd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ehlinger, H. D. & Davis, O. L. 편, 한국사회과교육회 역, 1986, 『사회과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NCSS, 1989, "In Search of Scope and Sequence for Social Studies". *Social Education*, October.
- <http://www.skypoint.com/members/dennyj/Values1st/citizenship.html>
- Newmann, F. M., 1975, *Education for Citizen Action-Challenge for secondary curriculum*. McCutchan Publishing Corporation.

- Parker, W. C., 1989, "Participatory Citizenship: Civics in the Strong Sense". *Social Education*. 53. 353-354.
- Perry, James L. and Katula, Michael C., 2001, "Does Service Affect Citizenship?". *Administration & Society*. 33(3). 330-365.
- Proctor, R. E., 1988, *Education's Great Amnesia*. Indiana University Press.
- Quigjeg, C. N. et al., 1991, CIVITAS: A framework for civic education. Calabasas : CA. Center for civic Education.
- Ross, Alistair, 2007, "Multiple identities and education for active citizenship".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55 No.3. 286-303.
- Savage, T. & Armstrong, D., 1996, *Effective teaching elementary social studies*(4th ed.). N.J.: Prentice-Hall, Inc.
- Schutz, A., (ed.), 1975, *Collected Papers II: Studies in Phenomenological Philosophy*. Martinus Nijoff.
- Staeheli, L. A., 2008, "Citizenship and the problem of community". *Political Geography* 27, [www.elsevier.com/locate/polgeo](http://www.elsevier.com/locate/polgeo)
- Steenbergen, B. van, 1994, *Towards a global ecological condition of citizenship*.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Turner, B., 1993, Contemporary Problems in the Theory of Citizenship. In B. TURNER *Citizenship and Social Theory*. London, Sage.
- Urry, J., 1995, *Consuming Place*. London:Routledge.
- Urry, J., 1990, *The Tourist Gaze*. London:Sage.
- Vasak, K., 1982, *For the third generation of human rights: the rights of solidarity*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 Strasbourg, July 1979).

- Westheimer, J., & Kahne, J., 2004, "What kind of citizen? The politics of educating for democrac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2).237-269.
- Yuval-Davis, N., 1997, "National Space and Collective Identities: Border, Boundaries". *Citizenship and Gender Relations* (Inaugural Lecture, University of Greenwich).

# A Study on the Citizenship Education for Realization of the Democratic Value : focused on the Rationality and Morality

Oh, Kwan-suk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formality and substance of the citizenship education to realize value of democracy in terms of the focus on rationality and morality. The study was to focus on a discussion which is the orientation and ideas, and which is subject and object and educational goal that are concerned about the citizen's consciousness of the community, and about the nature's cultivation of democratic citizens.

In the result of study, citizenship education was related to and effected by citizen's consciousness of the community and nature's cultivation of democratic citizens. Citizen's consciousness of the community at first has a little effected on rationality of decision making. Nature's cultivation of democratic citizens has a little effected the morality of citizenships education. A rationality of decision making builds a cultivation democratic process and the ability of the problem solving. The morality of citizenship education achieves the right and duty in which is internalizing a dignity of human. As a result, citizenship cultivation in the community has a lot of citizen education to the rationality which is based to focusing on the formality. The morality to democratic

citizens is establishing the method of standards of education.

In conclusion, citizenship education of the democracy is the ability of rational decision making in which is solving social problems. And it is internalization in which is realizing a human dignity for the value of morality. Citizenship education is recognized as foundational elements to realize the democratic of rational and morality.

**Key words : Citizenship, Consciousness, Democracy,  
Citizenship Education , Rationality, Morality**